

“환경규제 높아서 투자 못한다?”

상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조사 ... 합리적인 규제장치 필요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환경규제를 꼽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표 박용성)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50개사(회수율 70.7%)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환경규제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의 체감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0%가 현재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기업 중 7개사는 심각하게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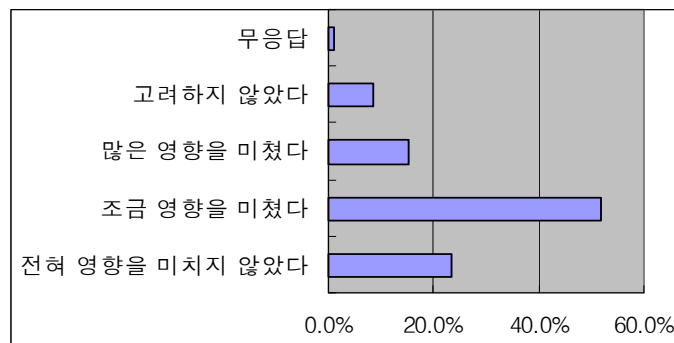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까다로운 행정절차>라고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배출기준(22.5%)>과 <지나친 지도단속(16.9%)>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기업의 55.7%가 앞으로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된다면 신규투자 없이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8.8%로 나타났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한국의 환경수준을 묻는 질문에 57.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나쁘다(28.3%)>와 <좋다(13.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51.9%가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15.1%로 조사됐다.

한국의 환경규제가 최초 투자규모 결정에 미친 영향



한국기업의 친환경경영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잘하고 있다(18.0%)>보다는 <못하고 있다(22.6%)>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아울러 한국의 환경정책 당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50.0%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못하고 있다(27.4%)>라고 응답한 기업이 <잘하고 있다(15.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는 외국인이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 일정 부분 환경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발전도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면서 “일방적인 개발우선론과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극단적인 보전논리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4>